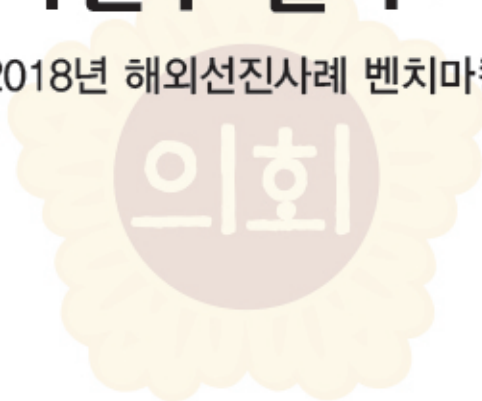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2018년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2018년 국외선진사례 연수

┃ 기 간 ┃ 18. 10. 17 ~ 10. 25 / 7박 9일

┃ 인 원 ┃ 김수문 위원장 등 12명

┃ 연수지역 ┃ 영국 / 포르투갈 / 스페인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해외 추진 우수정책(도시계획 및 정비, 재난·소방 안전분야) 견학
- 선진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한 자료 수집과 정책발굴 연구

– 방문 주요 장소

방문일정		방문지
10월 18일(목)	런던	템즈베리어
10월 22일(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주의회
10월 23일(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시 재난재해조정센터
10월 24일(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22@혁신지구

주요 방문지 활동 현황

런던



템즈베리어

- 시설내용

- 런던 중심부 템즈강에 위치한 홍수 조절용 장벽(1982년 준공)
- 템즈강의 수위를 조절하여 주변지역의 침수방지
- 길이 520m, 콘크리트 교각(9), 수문(6), 작은 고정수문(4)



템즈베리어



템즈베리어

－ 미래예측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져 2070년까지 연장 계획을 수립 중
- ‘템즈강 어귀 2100 프로젝트(2000년의 홍수 위험등을 고려)’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을 계획
- 제2의 계획은 향후 100년을 대비(2070년까지 베리어 추가 신설)



지진, 태풍에 의한 피해사례

– 경주 지진피해 2016.09.



– 포항 지진피해 2017.11.



– 영덕 태풍 콩레이 피해 2018.10.



내진보강 사업계획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계	476	175,203	36	1,123	84	11,117	21	2,178	13	2,688	322	158,097
경북도	90	2,423	36	1,123	43	1,100	11	-	-	-	-322	-
시군	386	172,780	-	-	41	10,017	10	1,978	13	2,688		158,097

* 내진율 : 37.6%(2017년) → 46.8%(2018년) → 53.9%(2021년, 도 100%)

– 내진성능 조기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건의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지방세 감면, 풍수해보험 등 홍보)

–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 추진 : '18년 약 220개소, 520억원

* 내진률 : 18.7%(2016년) → 41.3%(2018년) → 100%(2024년)

서울에 '대심도 배수관' 7곳 뚫는다

국도개발 관련 자료

서울에 '대심도 배수관' 7곳 뚫는다

신원·한강로·강남역 등 빗물침수 취약지역 설치

문화일보 | 이경덕기자 | 입력 2011.10.17 14:11

매년 수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주요 물마해 예상 지역 7곳(포암포)에 '초대형 지하 하수관'인 '대심도 배수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풍문구 요자물에서 설계권을 잇는 광화문·대심도 배수관 건설을 포함해 2012년까지 신원·화곡동, 용산구 한강로,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 일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 대심도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심도 배수관 설치 예정 지역

지치구	대상지역	시공거리	소요사업비
은평	광화문 일대	을지동~청계천 2.0km	300억원
양천·강서	신원동·화곡동 일대	신원동~양천 4.3km	1,852억원
동신	용산 한강로 일대	한강지역~한강 2.0km	1,169억원
관악·홍익	사당역 일대	사당역~한강 3.6km	1,595억원
강남	강남역 일대	강남역~한강 3.1km	1,317억원
동작	신대방역 일대	신대방역~여의도 3.2km	1,363억원
강동	길동 일대	길동~원효동 1.8km	850억원

바닥 지역과 한강 또는 지천까지를 잇는 이들 대심도 배수관은 **지하 30~40m 깊이**에 **지름 5~7.5m 크기로 건설**돼 서울 빗물 배수 시스템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 하수관은 지표면 바로 아래에 깔려 있어 미물량이 흘러들며 배수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대심도 배수관은 지하 깊은 곳에 깔려 있어 확장을 하기가 비교적 쉬워 더디가 저류 용량 지체도 대폭 향상된다.

시는 이들 대심도 배수관을 모두 하는 데에 **총 예산 8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호자물에서 설계권까지 3km를 잇는 광화문 배수관에 이어 사당역에서 한강까지 3.6km, 신원·화곡동에서 양천까지 4.3km를 잇는 대심도 배수관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연차 설계 공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광화문 배수관은 2012년 2월 기본설계를 마친 후 2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완공 예정이다.

또 신원·화곡동~양천 구간은 이르면 올 연말, 사당역~한강 구간은 내년 3월 각각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들 지역 외에도 동작구 10에서 한강까지 3km,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3.1km,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여의도까지 3.2km, 강동구 길동에서 원효동까지 1.8km 구간에 대심도 배수관을 단계적으로 불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5일 보충공사를 마치고 '물수'에 불어난 광화문 하수갑거가 미연대로 수중으로 시간당 95mm의 배수능력을 갖췄다면 광화문 대심도 배수관은 일종의 '하수처리 고속도로'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간당 최고 105mm의 배수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덕기자 klee@munhwa.com

주요 방문지 활동 현황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

- 시내에 위치한 Barcelona 22@ 지역은 기존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서,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
- 바르셀로나 미디어 센터 등 주요건물들이 입주, 기업건물을 활용하여 업무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
-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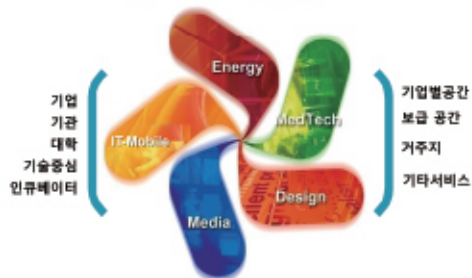


3단계 행동

- 1단계 : 도시 인프라 정비
- 2단계 : 경제활동의 변화
- 3단계 : 사회적 변화

프로젝트 리더십: 현재 상황 및 예측

22@Barcelona: 모임 및 활동



22@바르셀로나, 동쪽끝 변화 삼각형 포함



관련기사

사회

사회일반

경제 끝없이 추락해도 관계자 회의 '0'...市, 사실상 두 손 놓았나

f t g n y 기사내용보기

인쇄

-

+

구미산단 최악의 불황

박충현기자 2018-10-31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경이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곳곳에 공장부지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구미] 구미 경제가 벼랑 끝으로 물리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대들보인 구미국가산업단지만의 수출과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미산단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북은 물론 대구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획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구미산단 수출 실적은 19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점(206억달러) 대비 13억달러(6.7%) 감소했다.

2단계 재검토 '발목'... 道, 사업 방향 못잡고 우왕좌왕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난항



전체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인구 2만5000명을 목표로 4.258km²에 조성된 1단계 신도시의 모습. 경북도 제공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북도가 2단계 사업계획과 조성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초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선정 연내 해결될까

정창오 기자 | jco@newsis.com



【대구=뉴스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경북지역에 건설예정인 통합신공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전경. 2018.10.24. photo@newsis.com

【대구=뉴스시스】정창오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월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2곳을 결정하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결론



새로운 가치관 정립

– 인식의 틀 탈피

-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의 해결방안 탐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지

–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관점

-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정립



THANK YOU

감사합니다